

종교교육학연구 제16권. pp.87~10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6

한국인의 정체성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梁 銀 容¹⁾

(원광대학교)

《요약》

한국의 최근세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성립한 원불교는 한국인의 정체성문제와 관련 하여 다양한 교설을 전개하고 있다. 개조인 소태산은 법신불일원상(法身佛一圓相)을 종지로 하는 교체(敎體)의 연원을 불법(佛法)에 두면서도, 한국인을 제도해온 가르침을 유불도삼교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들의 특성을 살려 일원화해 나갈 때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의와도 만나는 큰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종교의 공존을 전제한 가르침이다.

소태산의 교설에 있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교설은 특히 <강자약자진화상요법>과 <금강산 법문>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그는 한국을 ‘요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앞으로 세계 정신의 지도국, 인류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것은 금강산의 주인으로서의 한국인이 법기(法器)를 갖추므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과학과 도학을 병진하는 참 문명인을 길러낸다는 수행이론은 그 교육 프로그램인 셈이다.

핵심 주제어 : 유불도삼교, 소태산, 금강산법문.

I. 서언 : 소태산의 원불교 창립

종교교의를 구세이념(救世理念)으로 볼 때, 개조의 종교체험은 그 교의를 틀잡는 기본시각을 마련할 뿐만아니라, 시대사회를 보는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 종교

1) 이 논문은 200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체험은 특정한 시대사회 환경 아래서 이루어지며, 거기에서 체달된 궁극적 경험 역시 그 사회민중의 구제를 통로로 하여 문화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불교의 교의이념에는 한국인의 정체성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관점이 나타나 있다. 개조 소태산대종사(朴重彬, 1891-1943, 이하 존칭생략)의 종교체험이 한국, 그것도 근세의 격동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구도수련기(求道修練期)가 조선왕조의 멸망과 함께 생민이 도탄에 빠지고 사상계가 일대혼란을 겪던 시대였다면, 대각개교(大覺開教, 1916) 이후의 제도행화기(濟度行化期)는 일제침략기의 억압과 함께 극히 제약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민중을 교화하는 교설이 민족문제와 관련될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직접 간접으로 베풀어진 법문이 매우 다양하며 방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그 의지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불교의 교의체계를 이루는 《정전(正典)》은 소태산의 찬이며, 그의 언행록인 《대종경(大宗經)》은 당연히 일제시대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 밖의 교서에도 관련된 사항이 산견되는데, 우리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수난기를 민중과 함께 하면서 베풀어진 소태산의 교설은 이와같이 원불교 민족관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불교 입장에서 본 <한국인의 정체성문제와 종교교육>이라는 주제를 소태산의 한국관과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인의 정체성문제나 이와 관련된 종교교육에 대한 견해도 교의체계를 전제로 할 때 좀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의체계 등은 생략하고, 소태산의 교설에 나타난 기본 입각지 내지 그 지향점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전제해 둘 사항은 원불교 교의를 보는 두가지 관점이다. 첫째는 소태산이 교법의 축을 불법(佛法)에 두었다는 점이다. 그는 스스로 발심·구도 끝에 대각을 이룬 다음, 깨달음의 극치를 과거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구명하는 과정에서 석존을 연원으로 삼게된다. 당시 사회민중에게 불교가 홀대받는 바를 충분히 알면서도 <서가모니불은 성인들 중의 성인> 이요, <불법은 무상대도(無上大道)>이며, <장차 불교는 세계의 주교(主教)가 될 것>이라 설파하고 있다.¹⁾ 원불교의 교체를 불법에 두고, 그 시대화·대중화·생활화를 실천이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념적 기반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둘째는 구세이념을 정신개벽(精神開闢)에 둬으로써 한국 민중종교이념을 전개

1) <원불교교사> 교법연원, 원불교정화사편, 《원불교전서》, 이리: 원불교출판사, 1977, 1040쪽.
이하 참조.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각을 이룬 소태산은 시국강령으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²⁾라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원불교의 개교표어가 되었는데, 개벽관으로 불리는 이 사상적 연원이 동학-증산교로 이어지는 한국 민중종교의 혁세이념임은 말할 나위없다.³⁾

이렇게 보면 원불교는 독자적인 교리체계를 형성하면서도, 교체의 중심축을 불교흐름에 두고 교단 형성기의 시대사조를 수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태산의 한국관,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원불교의 관점은 이를 경(經)과 위(緯)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말이다.

II. 전통사조와 그 회통

한국의 전통사조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유불도 삼교사상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물론 이들은 외래의 종교사상이며 이들은 고유사상으로서의 한불사상 위에 수용되고 있는데,⁴⁾ 후자는 전자를 수용하는 신앙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하면서 기층신앙으로 전승되고, 유불도사상이 표층신앙으로 사조를 주도해온 것이다.

원불교는 이러한 유불도사상이 오랜 역사를 통해 구세이념을 전개해 온 오는 가운데 최근세에 이르러 서구사상과 함께 도래한 그리스도교, 그리고 한국에서 자생한 신종교운동이 교단의 형태를 이룬 상황에서 교체를 형성하고 있다. 동서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존의 종교에 대한 대립과 수용의 어떤 태도를 취하게 마련인데, 원불교는 대체로 수용 즉 종교공존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

소태산은 교법의 주체를 불교에 두면서도 삼교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마침내는 세계 모든 종교의 가르침까지 회통하는 입장을 취한다.⁵⁾ 먼저 그의 삼교

2) <대종경> 서품 4장, 《원불교전서》 96-97쪽.

3) 金洪喆,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102쪽 이하 참조. 흔히 後天開闢思想으로 불리며, 종교회통사상·민족주의사상·인본위사상·사회개혁사상과 함께 한국 민중종교의 사상적 특징으로 지적된다.

4) 柳炳德, 《한국사상과 원불교》, 서울: 교문사, 1989, 6쪽. 이하에서는 한국종교를 原型(Prototype)과 祖型(Archetype)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仙과 巫, 후자를 한불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한 연구에는 徐慶田, <소태산사상에 나타난 유불도사상 및 서구종교사상 수용>, 원광대학교 편, 《논문집》 15, 1981, 35쪽 이하; 李鉉澤, <소태산의 유교수용과 유교사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편, 《원불교사상》 12, 1988, 107쪽 이하; 琴章泰, <한국유교사상과 소

관을 보면,

불가(佛家)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삼아서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전미개오(轉迷開悟)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유가(儒家)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있는 것을 주체삼아서 삼강·오륜과 인·의·예·지를 가르쳐 수·제·치·평(修齊治平)의 길을 주로 밝히셨으며, 선가(仙家)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삼아서 양성(養性)하는 방법을 가르쳐 청정 무위(淸靜無爲)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이 세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령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라⁶⁾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形體)를 나타낸 것이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心體)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 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入定處)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太極) 혹은 무극(無極)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에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邪道)라 ...⁷⁾

라 밝히고 있다. 이는 유불도삼교가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한국사회에 키친 제도 실적의 평가를 전제하는 표현이다. 입각지나 가르침의 주체가 각각 다르면서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령을 이롭게 하는 것”은 같다고 소태산은 본다.

그러면 이들의 비판적 수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는 전통사상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한다. 즉,

과거에는 유·불·선 삼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하여 왔지마는,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태산사상》,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이리: 원불교출판사, 1991, 479쪽 이하; 이영춘 〈원불교사상의 유교적 연원〉, 박맹수의 공저,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서울: 원화, 1991, 107쪽 이하; 韓基斗 〈소태산의 불교관〉, 《원불교사상》 2, 1977, 183쪽 이하; 柳炳德 〈원불교의 불교관-소태산의 불교사상 수용에 관한 일고〉,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이리: 원광대출판국, 1984, 1137쪽 이하; 洪潤植 〈韓國佛教史上의 원불교〉,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447쪽 이하; 졸고, 〈한국도교와 소태산사상〉, 《인류문명과 원불교》, 585쪽 이하를 참조.

6) <대종경> 교의품 1장, 《원불교전서》, 111쪽.

7) <대종경> 교의품 3장, 《원불교전서》, 112-113쪽.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精神修養)·연구(事理研究)·취사(作業取捨)의 일원화와 또는 영육쌍전(靈肉雙全)·이사병행(理事並行)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여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四通五達)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⁸⁾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 나니…일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見性)이요, 일원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養性)이요, 일원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술성(率性)인 바, 우리 공부의 요 도인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계·정·혜(戒定慧) 삼학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혜며 견성 이요, 취사는 계며 술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실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⁹⁾

고 밝히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전통종교가 역할 해왔던 것처럼 분야별 교화만으 로는 부족하며, 새 시대의 종교로서 이들 분야별 가르침의 일원화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기한다. 그는 많은 종교 가운데 삼교의 가르침을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수행교리인 삼학과 관련시켜 말하고 있다. 삼학이란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 사인데, 유불도삼교의 특성을 각각 이들에 대비시킨다. 즉 삼학을 각각 양성·견 성·술성으로, 또는 불교삼학인 정(定)·혜(慧)·계(戒)로 요약하여 대비하는 것 이다.

이를 유불도삼교에 대비한다는 것은 불교의 요체를 견성과 혜에, 도교의 요체를 양성과 정에, 유교의 요체를 술성과 계에 대비한다는 말이다. 견성이 성품의 깨달 음을 추구하는데 대하여 양성은 온전한 성품을 길러가는 수련을 말하여, 술성은 그 성품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혜·정·계도 각각 그러하므로, 계를 지계(持戒)의 차원이 아니라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실천¹⁰⁾〉의 힘으로 볼 때, 유교의 특성과 만나게 된다.

삼교사상의 요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들을 새로운 교법으로 회통시킨다는 뜻이며, 구세제인(救世濟人)을 위한 실천이념으로서의 일원화를 말한다. 한국 전통에 있어서 삼교를 합일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미 고구려말기인 보장왕 2년(643)

8) <대종경> 교의품 1장, 《원불교전서》, 111-112쪽.

9) <대종경> 교의품 5장, 《원불교전서》, 113-114쪽.

10) 소태산은 〈작업취사의 결과〉를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 정의는 용맹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전〉 교의편, 《원불교전서》, 50쪽.)

에 연개소문이 당으로부터 도교도입을 왕에게 주청하는 가운데 삼교를 쫄의 세 발(鼎足)과 같으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¹¹⁾고 표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신라말의 최치원(崔致遠, 857-?)이 신라사회에 유행한 풍류도를 일러 칠로 삼교의 중지를 포함하고 있다”¹²⁾고 설파한 바에서 보면, 고유신앙에서부터 전개되어 온 한국적 정체성으로 파악된다. 여말선초의 정도전(鄭道傳, 1337-1898)가 유불도삼교를 각각 이(理)·심(心)·기(氣)에 대비하는 것이나¹³⁾,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이 삼교합일을 논한 것¹⁴⁾도 이국치세에 있어서 이를 요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세에 이르러 영가무도교(詠歌舞蹈敎)를 연 김항(金恒, 1826-1898)이 유불도삼교의 요체를 각각 존심양성(存心養性)·명심견성(明心見性)·수심연성(修心練性)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¹⁵⁾,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소태산의 관점이 전통사조의 핵심을 꿰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소태산은,

우리가 기위 한 교문을 열었으니 어찌하여야 과거의 모든 폐단을 개선하고 새로운 종교로써 세상을 잘 교화하겠는가.¹⁶⁾

그대가 어찌 강산과 인물만 말하는가. 고금 천하에 다시 없는 큰 도덕이 이 나라에 건설되는 줄을 그대는 모르는가.¹⁷⁾

라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과거 (종교의) 모든 폐단〉이나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리〉라는 표현도 다만 상징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소태산의 범문¹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종교표현이 이를 말해주고

11) 《三國遺事》권3, 寶藏奉老普德移庵條. 이를 三教鼎足の 치세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2) 崔致遠, 〈鸞郎碑序〉, 《三國史記》新羅本紀 권4, 眞興王條.

13) 鄭道傳, 〈心氣理篇〉, 《三峰集》所收.

14) 淸虛休靜, 〈三家龜鑑〉, 《淸虛堂集》. 그는 유불도의 요체를 각각 仁·道·心 등으로 요약하고, 이들이 다시 心 하나로 만나고 있음을 말한다.

15) 金恒, 《正易》. 그는 영가무도를 도교에서 말하는 精·氣·神三寶의 조화로 보고, 정을 유교의 萬里貫通, 신을 불교의 頓悟貫通, 기를 도교의 修練貫通으로 파악한다.

16) 〈대종경〉 교의품 39장, 《원불교전서》, 138-139쪽.

17) 〈대종경〉 실시품 44장, 《원불교전서》, 343-344쪽.

18) 소태산의 동서종교에 대한 관점은 〈대종경〉 전망품 13장, 교단품 6장·27장 등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신성품 12장, 변의품 9장, 전망품 14장 등에, 신종교에 대해서는 수행품 29장, 인도품 1장, 전망품 10-11장, 실시품 14장, 변의품 29-32장 등에 산견된다.

있다. 그의 구세경륜이 민족이나 국가 혹은 시대를 뛰어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극 적은 한국으로부터 혹은 이 민족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III. 강약진화 법문과 한국관

소태산의 법문 가운데 한국관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강약진화 법문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으로, 1916년 대각을 이루고 이어서 행해진 〈최초법어(最初法語)〉의 하나로 정리되어 있다.¹⁹⁾ 이의 최초 형태는 당시 식민지정책과 관련하여 지배와 피지배, 즉 일본과 한국을 갑동리와 을동리로 대비하여 강약진화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정전〉에는 요지를 드러내는 편집원칙에 의하여 일제(日帝)라는 실상이 생략되어 있는데,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 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시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없이 다만 자리타해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²⁰⁾

라 나타난다. 국가간의 만남이 강약관계로 나타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둘의 관계를 상호부조와 자리이타의 관계로 정립하고 있다. 강과 약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원리를 찾아 다같이 강으로 진화해 나가는 상생관계로 내다 본다. 따라서 이는 소태산의 대일민족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19) 〈정전〉수행편, 《원불교전서》, 85-86쪽. 이 법문이 문자화된 것은 1928년 李共珠수필,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월말통신》1호, 1928, 5월호에 의해서이다.

20) 앞의 책.

이러한 소태산의 일제에 대한 관점은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일제는 종교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신도·불교·기독교 3교단은 이른바 공인종교로 취급하고, 그 밖의 모든 교단은 유사종교로서 단속하는 종교정책을 취하였다. 따라서 원불교는 후자로,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어 있어서 교화활동은 물론, 교리나 조직제도 그리고 의례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제약을 받았고, 문화적으로도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다.²¹⁾ 실제로 소태산 자신이 갖은 억압과 구속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무력의 대결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상생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미년(1919) 이후 인심이 극히 날카로운 가운데 대중사에 대한 관현의 지목이 날로 심하여, 금산사에 계시더니 김제 서에서와, 영산에 계시다가 영광 서에서 여러 날 동안 심문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평생에 수 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으나, 조금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바가 없이 늘 혼연히 상대하여 주시었으며, 대중에게도 이르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따름이라,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인들 끝내 해하고 막지는 못하리라.²²⁾

한 제자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일경이 하룻동안 대중사를 심문하다가 ...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흑심하여 억울하게 묻어 둔 원한들이 많은지라, 앞으로 큰 전쟁이 한 번 터질 것이요,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서로 돕고 우호 상통 할지언정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²³⁾

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중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 머무르는데, 대중사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 없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지 않겠나이까'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그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될 것이 무엇이리요.'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시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고 그 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니...²⁴⁾

라는 예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따름이라〉는 표현은

21) 줄고, 〈원불교 문화형성의 사회적 배경-일제시대의 종교정책과 그 영향에 대한 검토-〉, 《원불교사상》 19, 1995, 349쪽 이하 참조.

22) 〈대종경〉 실시품 8장, 《원불교전서》, 329쪽.

23) 〈대종경〉 실시품 10장, 《원불교전서》, 330-331쪽.

24) 〈대종경〉 실시품 12장, 《원불교전서》, 331쪽.

어떠한 억압을 받더라도 교화활동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요,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이르러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해 성토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진로 등에 관해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교화관은 민족에 한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종교인으로서의 소태산은 일제까지도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다.

IV. 금강산 법문의 지향점

소태산의 민족관을 집약하는 것은 금강산 법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전망 즉 한국미래관 내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실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법문은 1928년과 1930년의 두차례에 걸친 법문이 주를 이룬다.²⁵⁾

이 중에서 민족관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항은,

대종사 개교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우리의 현상을 비판하지 말고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에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에 공을 쌓으라.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금강산 같이 되기로 하면 금강산 같이 순실하여 순실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며, 금강산 같이 정중하여 각자의 본분사에 전일하며, 금강산 같이 견고하여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 그러하면 산은 체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될지라, 체는 정하고 용은 동하나니 산은 그대로 있으되 능히 그 체가 되려니와 사람은 잘 활용하여야 그 용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어서어서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연마하여 세계의 모든 산 가운데 금강산이 드러나듯 모든 사람 가운데 환영받는 사람이 되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범적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하면 강산과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빛을 발휘하리라.²⁶⁾

25) 1928년 음력 9월 28일 법문이 〈대종경〉전망품 6장이며, 1930년 5월 12일 법문이 전망품 5장과 신성품 12장이다. 전자는 당시 서울에서 열린 조선박람회 참관을 통한 법문이며, 후자는 금강산탐승을 통한 법문이다. 줄고, 〈소태산대종사의 금강산법문과 민족관〉, 《원불교사상》, 21, 1997, 365쪽 이하 참조.

26) 〈대종경〉전망품 6장, 《원불교전서》, 430-431쪽.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계(金剛現世界)하니 조선이 갱조선(朝鮮更朝鮮)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²⁷⁾

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법문이 설해진 당시는 말할 나위 없이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 금강산이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을 소유한 금강산의 주인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갱조선〉의 관점은,

조선은 개명(開明)이 되면서부터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견도 많이 열리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魚變成龍)이 되어가고 있나니라.²⁸⁾

고 한 〈어변성룡〉과 같은 차원으로 보인다. 일제식민지 하의 피지배민중에게 세계에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으로 예견한다. 물론 이를 운도론(運度論)에 의한 기다림이 아니라 종교적 수련을 통해 닦아나가야 함을 소태산은 강조하고 있다.

V. 결어 : 한국인의 정체성과 종교교육

소태산이 대각을 이루고 원불교를 창립한 것은 이미 이 땅에 전통종교를 비롯하여 새로 전래된 서구종교와 일본종교, 그리고 신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 아래서였다. 한국의 자생종교로서 독자적인 교체를 분명히 하면서도 이들 기성의 모든 종교들과 공존과 회통을 꾀하고 있다. 고유신앙의 바탕 위에 유불도삼교가 수용되고, 이국치세(理國治世)를 위해서 이들이 공존했던 것처럼 근원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 순서를 보면 일원상진리에 근원하고, 불교 내지 삼교사상과 만나며, 다시 동서 고금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두루 회통한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모습을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분야만의 교화가 아

27) 〈대종경〉 전망품 5장, 《원불교전서》, 429-430쪽.

28) 〈대종경〉 전망품 23장, 《원불교전서》, 393-394쪽.

니라, 일원화 내지 사통오달하는 가르침을 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고 있다.

소태산은 제도행화기가 일제기였던 만큼 언행에 커다란 제약을 받으면서도 온건하게 민족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의 억압 아래서도 무력의 대결이 아니라 다같이 강(強)을 실현하는 상생평화적인 관계정립을 모색한다. 그리고 〈금강산 법문〉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금강산의 주인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조선개조선〉 혹은 〈어변성룡〉의 시기에 처해 있으며, 마침내 세계정신의 지도국, 인류도덕의 부모국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그것은 운도론에 의한 기다림이 아니라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하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종교적 수련이란 그가 〈개교의 동기〉에서,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행복 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행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²⁹⁾

고 말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가리킨다. 소태산이 학문 내지 지식교육 등을 주목했던 바는 〈최초법어〉에서,

시대를 따라 학업(學業)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수신의 요법〉 1조)

호주는 건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술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제가의 요법〉 2조)

지도 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1조)³⁰⁾

라 한 바에서 알 수 있다.

원불교의 교체형성기는 현대교육의 도입·정착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교

29) 〈정전〉 총서편, 《원불교전서》, 21쪽.

30) 〈정전〉 수행편, 《원불교전서》, 84쪽 이하.

리체계에 있어서 훈련법³¹⁾을 낳고, 마침내 원불교 교육기관 설립의 이념적 기반이 되고 있다. <세전(世典)>에서는 이를,

국가에는 다스리는 이와 다스림을 받는 이가 있게 되고 교화하는 이와 교화를 받는 이가 있게 되며, 다스리는 이와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각각 그 도를 잘 행하고 못함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고, 교화하는 이와 교화 받는 이들이 각각 그 도를 잘 행하고 못함에 따라 나라의 성쇠가 좌우되나니라.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전>에 밝혀주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먼저 갖추는 동시에 반드시 그 도를 잘 이행하여야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앞길에 지장이 없을 것이요, 국민은 또한 국민의 도를 잘 이행하여야 그 나라가 흥성하고 그 국민이 한가지 행복을 누리게 되나니라.³²⁾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할 것이니라.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부문이 있나니, 하나는 과학교육이요 하나는 도학교육이라, 과학교육은 물질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써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³³⁾

고 밝힌다. <개교의 동기>에서 제기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가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도학이 겸전된 참 문명인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정당한 강자요, <금강산 법문>에서 제시하는 세계 정신의 지도국, 인류도덕의 부모국 건설의 주인공이 된다고 할 것이다.

31) 定期訓練과 常時訓練을 말하며, 정기훈련에서는 念佛・坐禪・經典・講演・會話・疑頭・性理・定期日記・常時日記・注意・操行 등 11과목을 설정하고, 상시훈련에서는 常時應用注意事項 6조와 敎堂來往時注意事項 6조를 두어 <공부인에게 일본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을 밝히고 있다.(<정전> 수행편, 《원불교전서》, 55쪽 이하.) 이는 소태산 당시부터 실시해 오던 프로그램이며, 그 시행과정에 학위등급・신분검사・승급식 등 교육기관의 제도를 응용한 흔적이 나타난다.

32) <세전> 국가, 《원불교전서》, 743쪽.

33) <세전> 교육, 《원불교전서》, 730-731쪽.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봉집》
《원불교전서》
《청허당집》

- 금장태, 〈한국유교사상과 소태산사상〉,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이리: 원불교출판사, 1991.
- 김홍철,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 서경전, 〈소태산사상에 나타난 유불도사상 및 서구종교사상 수용〉, 《논문집》 15, 원광대학교, 1981.
- 양은용, 〈원불교 문화형성의 사회적 배경-일제시대의 종교정책과 그 영향에 대한 검토-〉, 《원불교사상》 19, 1995.
- _____, 〈소태산대중사의 금강산법문과 민족관〉, 《원불교사상》 21, 1997.
- 유병덕, 《한국사상과 원불교》, 서울: 교문사, 1989.
- 이영춘, 〈원불교사상의 유교적 연원〉, 박맹수의공저,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서울: 원화, 1991.
- 이현택, 〈소태산의 유교수용과 유교사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편, 《원불교사상》 12, 1988.
- 한기두, 〈소태산의 불교관〉, 《원불교사상》 2, 1977.
- 유병덕, 〈원불교의 불교관-소태산의 불교사상 수용에 관한 일고〉,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이리: 원광대출판국, 1984.

원고접수: 5월 3일 1차심사: 5월 16일 게재승인일: 5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한국사상사
- ③ 주요논저: 《임진왜란과 불교의승군》, 《소태산 대중사의 금강산 법문》, 〈제7차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 ④ E-mail: ilsan@wonkwang.ac.kr
-

Issue of Korean's Identity and Religious Education : Sotaesan's Perspective

Y ang , Eun-Y ong

(W onkw ang U niversity)

《A bstract》

Wonbuddhism which originated in the modern Korean situation absorbed a variety of teachings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Korean identity. The founder of Wonbuddhism (Junghin Baak, with a pseudonym of Sotaesan: 1891-1943) viewed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s the main trunk of Korean thoughts, even if he based a central point of his teachings on Buddhism. In addition, he maintained that we could find one way to the main theme of the world religions' tenets, if we synthesized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teachings. His teaching presupposed the coexistence of multi-religion.

Among Sotaesan's teachings, the dharmas such as "the essential dharmas regarding how the strong and the weak may evolve" and "dharma of Keumgang Mountain" are the ones which revealed Korean's identity. In those teachings, he viewed that Korea was situated in "a changing period from a fish to a dragon" and predicted that Korea would become "a leader state of world mind" and "a parental state of mankind's ethics." He thought that it was possible, if Korean as owner of Keumgang Mountain got "a vessel of Dharmas." The programs for educating this identity are methods of practices which purport to raise the truly civilized humans with both capacities of religion and science by belief of truthful religion and moral training based on facts.

Key words : Three religious teachings of Confucianism, Buddhism, & Taoism,
Sotaesan, Dharma of Keumgang Mountain.